

-(으)ㄹ지언정

~할지언정 ...하지 않겠다

다른 무언가를 거부하기 위해 어려움을 감수합니다. 앞 절에는 기꺼이 치를 대가를, 뒤 절에는 절대 넘지 않을 선을 말합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ㄹ지언정	가다 → 갈지언정
자음으로 끝남	-을지언정	굽다 → 굶을지언정
ㄹ로 끝남	아무것도 볼지 않음	만들다 → 만들지언정
뒤 절	거부 또는 다짐	... -지는 않겠다
띄어쓰기	붙여 씀 — 하나의 어미	굶을지언정
종립적인 양보	-더라도	굶더라도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은 일반 규칙을 따르며 ㄹ 받침은 짧은 형태가 됩니다: 만들다는 만들지언정. 하나의 어미이므로 띄어 쓰지 않습니다.

두 절에는 순서가 있습니다. 먼저 감수할 대가를, 다음에 거부나 다짐을 말합니다. 굶을지언정 남에게 손을 벌리지는 않겠다 — 빌어먹느니 차라리 굶겠다는 뜻입니다.

뒤 절에는 거의 항상 -지 않겠다, -지는 않다 같은 거부의 표현이 옵니다. 이것이 없으면 이 구문은 기댈 곳이 없어집니다.

원칙과 자존심을 드러내는 어조이기 때문에 선언, 문학, 격식 있는 논증에 어울립니다.

■ 예문

- 1 굶을지언정 남에게 손을 벌리지는 않겠다.
- 2 늦을지언정 대충 하지는 않겠습니다.
- 3 손해를 볼지언정 원칙은 지키겠다.
- 4 몸은 떠날지언정 마음은 여기 두고 갑니다.
- 5 직접 만들지언정 남의 것을 빼끼지는 않는다.
- 6 가난할지언정 부끄럽게 살지는 않았다.

■ 비교

-느니

둘 다 달갑지 않은 두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지만, -느니는 단순히 덜 나쁜 쪽을 택하는 것이고 -(으)ㄹ지언정은 원칙의 문제로 삼습니다.

기다리느니 겠겠다. (실용적인 선택) / 굶을지언정 벌리지 않겠다. (원칙의 문제)

-더라도

-더라도는 가정을 인정하고 말을 이어 가고, -(으)ㄹ지언정은 무언가를 거부하기 위해 실제 대가를 감수합니다.

힘들더라도 하세요. (그래도 하라) / 힘들지언정 포기하지 않겠다. (대가를 감수함)

-(으)ㄴ들

또 하나의 문어적 양보 표현입니다. -(으)ㄴ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결론짓고, -(으)ㄹ지언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을 선언합니다.

후회한들 소용없다. (헛됨) / 굶을지언정 벌리지 않겠다. (단호함)

■ 주의

- ✗ 굶을지언정 밥을 먹겠다.
- 굶을지언정 남에게 손을 벌리지는 않겠다.
- 뒤 절은 반드시 거부나 다짐이어야 합니다. 단순한 의도로 끝나면 이 구문의 핵심이 사라집니다.
- ✗ 직접 만들을지언정 빼끼지 않는다.
- 직접 만들지언정 빼끼지 않는다.
- 만들 거예요, 만들 뿐이다와 마찬가지로 ㄹ로 끝나는 어간에는 이미 ㄹ이 있습니다.
- ✗ 야, 늦을지언정 대충은 안 해.
- 야, 늦더라도 대충은 안 해.
- (으)ㄹ지언정은 원칙을 선언하는 말입니다. 친구 사이에서 쓰면 연설처럼 들립니다.